

# 광양시, 구봉산 명소화사업(체험형 조형물 설치) 시민설명회 개최

### 오는 28일 성황스포츠크센터서...2025년까지 조형물 건립 포스코 생산 제품과 기술력 이용 광양시에 기부채납 예정

광양시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성황스포츠크센터(성황도이로 66-22, 2층 세미나실)에서 구봉산 명소화 사업(체험형 조형물 설치)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설명회는 2022년부터 포스코와 추진 중인 구봉산 명소화사업, 일명 '체험형 조형물 설치사업'의 디자인 작업에 앞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봉산 명소화 사업은 포스코에서 2025년까지 구봉산 정상에 빛의 도시 광양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포스코에서 생산한 제품과 기술력을 이용한 조형물을 건설해 광양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22년 10월 포스코와 광양시, 광양시의회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지난 7차례 실무자 회의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포스코에서 설계사와 작가선정 절차를 마쳤

다. 시는 시민설명회에 앞서 21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6일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시민설명회는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전문가 자문을 마친 의견에 대해 사업 계획 보고, 사업의 방향, 작품 디자인 등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

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사업을 통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광양을 대표할 명소가 탄생하길 바란다"며 "이번 시민설명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반영한 최상의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순천만국가정원 깜짝 놀랄 봄웃 입는다

###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주제 내달 1일 개막

순천만국가정원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단장하고, 4월 1일 개막한다.

정원의 아날로그적 요소는 완성도를 더 높이고 디지털 기술과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순천만국가정원에 화려한 봄꽃이 더해져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순천만국가정원은 50만 본의 화려한 튜립을 포함한 총 150만본의 봄꽃이 정원 곳곳에 심어져 꽃의 장관이 펼쳐진다. 특히 릴리안 등 30여 종의 새로운 화훼품

종을 도입해 더욱 다채로운 꽃의 향연이 순천만국가정원의 다양한 테마 정원과 어우러져,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남문 광장에 위치한 175m의 우주왕복선 모양 활주로인 '스페이스 허브'는 튜립, 아네모네, 루피너스, 스토크 등 형형색색의 꽃들로 연출해 미래와 자연이 공존한다.

또한 키즈가든 인근에는 두다다쿵 캐릭터 얼굴을 봄꽃인 베고니아, 크리산세뎀 등으로 연출해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이 밖에도 꽃들이 링형태로 사방을 감싸고 있는 반지정원, 꿈과 희망이 가득한 드림



정원, 유럽풍경식 정원의 아름다움을 연출한 라운정원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기존 정원의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웹툰 등 문화콘텐츠를 융합하여 단순하게 정원에서 정원 문화 산업으로

한 단계 상승시켜 시 전체를 산업기지화할 예정이다"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콘텐츠들로 새롭게 채워 깜짝 놀랄 새로운 문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환경교육' 전문 강사 모집

여수시는 2024년 행복교육지원센터 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18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 둔 시민으로 환경교육 분야 교육 이수 및 강의 경험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강사는 관내 초등학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여수시 평생교육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또는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평생교육과(☎061-659-521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아이들에게 여수의 아름다운 환경을 전하고 보존하려는 마음을 심어줄 지역 우수 강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꽃길 걸으며 봄 속으로... 30일 보성서 벚꽃축제

### '한국 아름다운 길 100선' 대원사 왕벚나무 터널 따라

보성군은 오는 30일 국립백민미술관 일원에서 제11회 보성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성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문덕면 죽산1리에서 죽산3리 대원사까지 5.5km 구간 왕벚나무 터널을 따라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왕벚꽃 터널 입구부터 행사장까지 차량을 통제한다. 벚꽃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까지 도보로는 25분, 버스로는 3분이 소요된다. 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왕벚나무 터널 입구부터 중간지점 행사장까지 이어지는 데크길은 만수무강한 경관과 벚꽃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산책코스, 구간마다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다



양한 포토존을 마련했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고흥군, 거금대교 복층 탐방로 새단장 마쳐

### 푸른 바다 위 걸으며 트릭아트 스틸도 느끼는 매력 만점 스팟 기대

고흥군의 거금대교가 복층 탐방로 정비사업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새 단장 됐다.

거금대교는 국내 최초로 자전거·보행자도로(1층)와 차도(2층)로 설계된 복층 교량으로 소용도를 지나 거금도로 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탐방로가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아주 매력적인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거금대교 탐방로를 새롭게 포장하고 곳곳에 현실감 넘치는 트릭아트와

벽화를 설치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추가했다. 또한 거금휴게소 일원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여행환경을 위한 사업이 앞으로도 계획되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거금대교가 매력적인 관광지로 주목받아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길 기대한다"며, "우리군의 대표 관광지인 녹동·거금권역을 더욱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여행 스팟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순천시, 道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4개년 기관표창 수상

순천시는 최근 전라남도 주관 '2023년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별량면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는 문화유산, 관광시설, 복지, 생활환경 등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전남도 내 297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도 주관 '현장 행정 우수 읍면동 평가'에서 4개년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 덕안동(최우수상), 2020년 서면(우수상), 2022년 해룡면(우수상)에 이어 2023년 별량면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순천시의 대표로 선정된 별량면은 적극행정을 통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이루어진 각종 지역축제 △따뜻한 이웃나눔 봉사활동 등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김승호 기자**

##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